

# 가계의 교육비 지출과 기혼여성의 취업선택과의 관계 :소득 계층별 특성에 주목하여

이 수 진\*

본 연구는 가계의 교육비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혼 여성이 취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인지, 주 수입원 이외에 자녀의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이 많아지는 것인지, 이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시결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가계의 교육비와 기혼여성의 취업선택 행동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을 고려해 소득 계층별 분석도 시도하였다. 가계의 교육비와 기혼여성의 취업선택 행동 간의 동시결정성을 고려한 분석에서는  $t-1$ 기의 사교육비 비율이 높을수록  $t$ 기에 기혼여성이 취업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 계층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하>인 집단과, 가구소득이 <상>인 집단이 사교육비 비율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이 취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서 론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의 특징의 하나로 교육비 부담 비율이 높은 것을 꼽을 수 있다. 전 교육단계를 통틀어 공적 부문에 필요한 교육비의 약 40%정도를 가계 등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OECD, 2013), 이는 OECD 가맹국 중 1위에 해당한다. 가계가 부담하는 공적 부문의 교육비에는 수업료를 비롯한 교과서 및 교재비, 통학버스비, 기숙사비 등을 포함되지만 학원 및 가정교사 등 공적 부문 이외에 필요한 경비의 사적인 부담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교육관련 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은 더욱 명확해 진다.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 대해서 개별가정에서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을까.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계는 교육비 이외의 지출의 절약, 저축의 감소를 피하기도 한다(유경원, 2010). 한편, 주 수입원인 아버지의 수입과 더불어 어머니의 수입이 가계의 교육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구의 교육비의 지출은 다른 가구에 비해서도 높다는 보고도 있다(都村, 2008). 이러한 배경으로 보면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수입원의 증가가 필요하게 되고

\*히로사키대학 교육학부 준교수

본 원고는 미완성 원고이므로 인용을 삼가 해 주십시오.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교육비 지출에 대응하려고 하는 가계행동이 예상된다.

기혼여성의 취업선택에 관해서는 이미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왔으며, 특히 남편의 수입이 부인의 취업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으며(武内眞美子, 2004; 오은진, 2013), 특히 일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클라스=有澤법칙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남편의 수입 이외의 요인으로 교육비의 부담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있다(김대일, 2008; 김영옥·이선행, 2009).

가계의 교육비에 관한 연구는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는 연구들이 중심이며 아직까지 기혼 여성의 취업선택과 교육비의 상호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가계의 교육비의 지출이 많기 때문에 기혼여성이 취업을 선택하는 것 인지, 주 수입원 이외에 자녀의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이 많아지는 것인지, 이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시결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고려하면, 소득계층과의 관계에도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교육비와 기혼여성의 취업선택 행동의 관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 둘 간의 관계가 가구의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의 고찰

### 1.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관련 요인 및 자녀관련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모관련 요인에 관해서는 부모의 학력, 가구소득(아버지의 근로소득 및 어머니의 근로소득),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학력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부 혹은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대일, 2008; 김영옥·이선행, 2009; 석재은·김봉근·노혜진, 2012; 송헌재, 2012). 특히, 김대일(2008)은 가구소득을 통제한 후에도 부모의 학력에 따라 사교육비가 증가함을 밝혀내고 부모의 학력과 교육열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김영옥과 이선행(2009)에서는 기혼 여성의 학력이 초대졸 이상 일수록, 또한 배우자의 학력이 초대졸 이상일수록 사교육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증가 역시 사교육비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대일, 2008; 김영옥·이선행, 2009; 석재은·김봉근·노혜진, 2012; 송헌재, 2012). 가구소득 뿐만 아니라 가구의 자산수준도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재은·김봉근·노혜진, 2012; 송헌재, 2012),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얻어졌다 (김대일, 2008; 송헌재, 2012).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해서 김대일(2008)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사교육

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학력과 취업여부를 함께 살펴 본 결과, 저학력 어머니의 경우 취업이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고학력 어머니는 오히려 취업하지 않을수록 사교육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대일(2008)은 이러한 현상을 고학력 어머니의 교육열이 취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석재은·김봉근·노혜진(2012)은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이 비경제활동인 경우에 모든 다른 경제활동 유형에 비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자녀관련 요인 중 자녀수에 관해서는 각 학년별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연구를 들 수 있는데(김영옥 외, 2009),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자녀수에 따른 사교육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교육비는 감소한다는 연구(석재은·김봉근·노혜진, 2012; 송헌재, 2012)도 있다.

## 2. 기혼여성의 취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여성의 취업선택과 관련한 논의는 많지만 본 절에서는 기혼여성의 취업선택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여성의 학력, 가구소득(배우자의 소득)에 관한 논의와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사교육비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학력에 관해서 보면 오은진·민현주·김지현(2009)은 고졸 학력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의 취업확률이 고졸이하 혹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의 여성보다 낮다고 하였다. 반면, 고졸이하 집단에 비해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여성의 취업확률이 낮다는 연구(오은진, 2013)도 있다.

소득에 관해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오은진 외, 2009) 혹은 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높을수록(김대일, 2008; 김영옥 외, 2009)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 즉 취업을 계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의 소득이 많으면 부인의 취업률이 낮다는 연구들도 있다(오은진, 2013; 張世頴, 2011; 武内, 2004).

사교육비에 관해서 김대일(2008)의 연구에서는 2 단계 추정을 통해서 사교육비 예측치가 기혼 여성의 취업선택에 양의 값을 갖는다는 점을 밝혀내면서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오은진(2013)도 사교육비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의 취업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반대로, 김영옥 외(2009)에서는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결정식의 추정을 통해서 사교육비가 많을수록 경력단절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밝혀냈다. 사교육비의 효과를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 볼 때 고졸이나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혼여성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은 경력단절의 가능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중졸 이하의 기혼여성의 경우 사교육비가 높아질수록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연구문제1>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는 가계의 사교육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가계의 사교육비는 기혼여성의 취업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가계의 사교육비와 기혼여성의 취업선택은 동시결정성을 가지는가?

연구문제 3-1 가계의 사교육비와 기혼여성의 취업선택의 관계는 소득계층별 차이가 있는가?

#### 2. 분석방법론

##### 가. 분석자료

실증분석을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자료는 가구의 소득과 소비의 상태와 변화과정에 대한 정보와 개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노동시장 이동과정, 결혼상태, 생활만족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혼 유배우 여성의 취업선택에 사교육비의 지출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성의 취업선택의 변화 및 가계의 소득 및 소비를 중심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노동패널은 조사년도 이전(t-1기)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및 개인의 근로소득, 가구의 소비지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소득 및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16차년도와 17차년도의 자료를 붙여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6차년도 시점에서 기혼 유배우자 상태에 있으며 20-60세, 모든 자녀의 연령이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인 기혼여성 834명이다.

##### 나. 변수의 측정

종속변수로 ① 16차년도의 취업상태 및 17차년도 취업상태 ② 16차년도 및 17차년도의 취업상태 변화 ③ 16차년도 및 17차년도의 취업상태 변화 조합을 사용하였다. ①에서는 16차년도에 미취업상태이면 0, 취업상태이면 1값을 취하였다. 동일한 방식으로 17차년도에 미취업상태이면 0, 취업상태이면 1값을 취하였다. ②에서는 16차년도 및 17차년도에 미취업 지속시에는 0, 미취업에서 취업으로의 변화에는 1값을 취하였다. ③에서는 취업계속, 취업에서 미취업, 미취업에서 취업, 미취업지속의 4가지 카테고리를 생성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사교육비를 설정하였는데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및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들어 간 가구의 총 사교육비 금액을 합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도구변수로는 생활향상에 대한 기대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사회에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점수한 한 것으로 매우 그렇다(1점) 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5점)의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분석

에서는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의 소득 집단별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구소득이 <하> 인 집단, 가구소득이 <중> 인 집단, 가구소득이 <상>인 집단으로 분류하였는데, 가구의 연간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4000만원 미만,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7000만원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표 1> 변수의 측정

항목		변수의 조작적 정의	
종속변인	취업상태	(1) 제16차년도 및 제17차년도의 취업상태	미취업=0 취업=1
		(2) 제16차년도 및 제17차년도의 취업상태 변화	미취업계속=0 미취업에서 취업=1
		(3) 제16차년도 및 제17차년도의 취업상태 조합	취업지속=1 취업→미취업=2 미취업→취업=3 미취업지속=4
독립변인	1차 추정식 종속변수	(1) 가계의 소비지출(생활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0-100
		(2) 가구의 총 사교육비	연속변수
	통제변수	본인의 학력	고졸이하=0 대졸이상=1
		본인연령	연속변수
		가구의 총 근로소득	연속변수
		본인의 근로소득	연속변수
	도구변수	자녀수	연속변수
생활향상 기대		매우 그렇다(1점)-매우 그렇지 않다(5점), 분석에는 역코딩한 점수를 사용	

1단계로 가계의 사교육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외생적 설명변수 및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사교육비를 추정한 다음 가계의 사교육비의 추정치를 1단계의 가계의 사교육비 대신 삽입하여 여성의 취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IV. 결과해석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가. 취업상태변화

<표2> 조사대상자의 취업상태 변화

		17차년도 취업상태		합계
		미취업	취업	
		265(32.4%)	550(67.6%)	814(100%)
16차년도 및 17차년도의 취업상태 조합				
t-1기	t기	취업	미취업	합계
	취업	394(50.0%)	30(3.8%)	788(100%)
	미취업	47(6.0%)	317(40.2%)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학력에 관해서는 가구소득이 <하> 인 집단과 가구소득이 <중> 인 집단에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일 때 고졸 이하 학력보다 사교육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이 <상> 인 집단에서는 학력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자녀수는 가구소득이 <중> 인 집단과 가구소득이 <상> 인 집단에서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교육비 비율이 높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가구소득이 <하> 인 집단에서는 자녀수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3> 기혼여성의 취업여부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월평균 가계소비에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		가구소득<하>		가구소득<중>		가구소득<상>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 기혼여성의 취업상태】								
취업 (ref: 미취업 )	-1.228	1.027	-2.444	2.323	-3.111	1.646 †	-2.106	2.526
【 통제변수】								
여성본인연령	-.048	.062	-.132	.100	-.011	.098	.266	.149 †
학력 (ref: 고졸이하 )								
대졸이상	2.698	.744 ***	2.868	1.458 *	3.029	.981 ***	-.904	1.819
가구 총 근로소득	.001	.000 ***	.003	.001 **	.001	.001	.001	.000 *
여성본인의 근로소득	.000	.000	.001	.001	.001	.000 *	-.001	.000
자녀수	4.049	.614 ***	3.441	1.088	4.313	.866 ***	4.046	1.465 **
cons	5.215	3.065	2.746	5.621 **	1.915	5.343	-1.929	7.721
F	21.60***		6.00***		7.78***		3.06**	
R <sup>2</sup>	.145		.125		.119		.107	
Adjusted R <sup>2</sup>	.138		.104		.104		.072	
N	774		260		353		161	

注) † p<.10 \*p<.05 \*\*p<.01 \*\*\*p<.001

<표4> 사교육비가 기혼여성의 취업선택에 미치는 영향<미취업에서 취업>

	전체		가구소득<하>		가구소득<중>		가구소득<상>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 사교육비 변수 】								
사교육비 비율	-.066	**	-.038	.028	-.153	.049 **	-.069	.130
【 통제변수 】								
여성본인연령	-.019	.022	-.002	.041	.035	.069	-.406	.371
학력 (ref: 고졸이하)								
대졸이상	.273	.031	.478	.527	.313	.713	—	—
가구 총 근로소득	-.001	.305	.000	.000	.193	.000	.000	.000
부인 소득/가구 총소득 비율	.000	.000	.005	.005	-.001	.008 **	.004	.025
자녀수	.316	.389	.520	.398	.017	.549	.792	3.431
cons	-1.329	1.457	-2.954	2.298	-.961	3.398	11.406	17.445
N	351		149		152		36	
Log likelihood	-106.9327		-58.2958		-31.9447		-7.0585	
χ2(df)	13.9(6)*		4.59(6)		15.07(6)*		6.54(5)	
Pseude R2	.061		.038		.191		.316	

注) † p<.10 \*p<.05 \*\*p<.01 \*\*\*p<.001

	취업지속 vs.		취업지속 vs.		취업지속 vs.	
	취업—>미취업		미취업—>취업		미취업지속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 사교육비 변수 】						
사교육비 비율	.013	.021	-.016	.020	.043	.009 ***
【 통제변수 】						
여성본인연령	.027	.032	-.014	.030	.012	.014
학력 (ref: 고졸이하)						
대졸이상	.044	.412 †	.335	.382	.107	.170
가구 총 근로소득	-.001	.000	-.001	.000 **	-.001	.000 ***
여성본인의 근로소득	-.001	.000	.000	.000	.000	.000
자녀수	-.146	.338	.226	.306	-.122	.146
cons	-2.263	1.600	-.802	1.405	-.051	.688
N	750					
Log likelihood	-700.4589					
χ2(df)	76.45(18)***					
Pseude R2	.052					

注) † p<.10 \*p<.05 \*\*p<.01 \*\*\*p<.001

였다. 첫 번째 줄에는 취업지속 유형을 기준으로 볼 때 취업-미취업 유형을 선택할 확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고졸 이하 학력 보다는 대졸 이상의 학력일 때 취업지속 유형보다는 취업-미취업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줄에는 취업지속 유형을 기준으로 볼 때 미취업-취업 유형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구의 총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취업지속 유형보다는 미취업-취업 유형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줄에는 취업지속 유형을 기준으로 볼 때 미취업 지속 유형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취업-취업 유형과 동일하게 가구의 총 근로소득은 미취업지속 유형에 속할 확률보다 취업지속 유형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가구의 소득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비율이 취업선택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가구소득이 <중> 인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취업지속 유형보다는 미취업 지속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사교육비와 기혼 여성의 취업선택과의 관계

<표6>은 기혼 여성의 취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기혼 여성의 취업에 관한 변수는 17차년도에 취업상태가 미취업이면 0값을, 취업이면 1값을 취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교육비 및 소득에 관해서는 16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전년도의 사교육비 및 소득이 다음년도의 취업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단계에서는 가계소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통제변수 및 도구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기혼 여성의 학력이 대졸 이상 일 때 고졸 이하보다 사교육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총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도 사교육비 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도구변수로 사용된 생활향상기대는 사교육비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사교육비의 추정치와 1단계에서 사용된 다른 변수들이 기혼 여성의 취업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6>의 두 번째 줄 이후에 제시하였다.

두 번째 줄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인데 전년도의 사교육비 비율이 높을수록 다음년도에 기혼여성이 취업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 집단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하> 인 집단과, 가구소득이 <상> 인 집단이 사교육비 비율이 높을수록 취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비율 이외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전년도의 가구의 총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취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가구소득이 <상> 인 집단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가구소득이 <하>인 집단과 가구소득이 <중> 인 집단에서는 가구의 총 근로소득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와 학력은 전체 모형 및 소득 집단별 모형에서 일관되게 기혼여성의 취업선택에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수가 많을수록 취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 보다 대졸 이상에서 취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기혼여성의 취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추정-사교육비 비율)

월평균가계소비에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1단계		2단계		2단계		2단계		2단계	
	종속변수:사교육비		기혼여성 취업선택		기혼여성 취업선택		기혼여성 취업선택		기혼여성 취업선택	
			전체		가구소득<하>		가구소득<중>		가구소득<상>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 1단계 종속변수】 가계의 사교육비의 추정치			.339	.081 ***	.419	.138 **	.184	.122	.517	.210 *
【 통계변수】										
본인연령	-.016	.063	-.006	.009	.005	.013	-.020	.014	-.120	.023
학력 (ref: 고졸이하) 대졸이상	2.551	.750 ***	-.882	.236 ***	-1.060	.393 **	-.609	.353 †	-.933	.565 †
가구 총 근로소득	.001	.000 ***	-.001	.000 *	-.001	.000	.000	.000	-.001	.000 *
여성본인의 근로소득	.000	.000								
자녀수	4.174	.620 ***	-1.432	.345 ***	-2.085	.574 **	-.934	.513 †	-2.449	.930 **
【 도구변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기대	-1.202	.744								
cons	5.216	3.159	-.667	.000	-2.085	0.871 *	-.355	0.884	.086	1.346
F / $\chi^2$ (df)	21.02***		53.26(5)***		16.25(5)**		17.74(5)**		8.90(5)	
R <sup>2</sup> / Pseudo R2	.143		.054		.047		.040		.056	
Adjusted R <sup>2</sup> / Log likelihood	.136		-463.2812		-166.6016		-212.3376		74.4238	
N	764		764		254		349		161	

注) ? p<.10 \*p<.05 \*\*p<.01 \*\*\*p<.001

가구의 총 사교육비	1단계		2단계		2단계		2단계		2단계	
	종속변수:사교육비		기혼여성 취업선택		기혼여성 취업선택		기혼여성 취업선택		기혼여성 취업선택	
			전체		가구소득<하>		가구소득<중>		가구소득<상>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 1단계 종속변수】 가계의 사교육비의 추정치			.128	.044 **	-.025	.072	.229	.067 **	.429	.153 **
【 통계변수】										
여성본인연령	.448	.276	-.074	.022 **	.007	.035	-.133	.035 ***	-.220	.076 **
학력 (ref: 고졸이하 ) 대졸이상	4.373	2.942	-.537	.212 *	.114	.361	-1.084	.317 **	-1.636	.741 *
가구 총 근로소득	.007	.001 ***	-.001	.000 **	.000	.001	-.001	.000 **	-.003	.001 **
여성본인의 근로소득	.000	.001								
자녀수	16.217	2.495 ***	-2.128	.722 **	.535	1.186	-3.933	1.105 ***	-7.116	2.472 **
【 도구변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기대	2.300	2.924								
cons	-35.936	13.162 **	4.782	1.502 **	-1.343	2.462	7.960	2.356	16.400	5.317 **
F / $\chi^2$ (df)	52.28***		44.36(5)***		6.99(5)		27.49(5)***		12.54(5)*	
R <sup>2</sup> / Pseudo R2	.324		.045		.020		.062		.080	
Adjusted R <sup>2</sup> / Log likelihood	.317		-476.7281		-171.2308		-207.4635		-72.6047	
N	663		764		254		349		161	

注) ? p<.10 \*p<.05 \*\*p<.01 \*\*\*p<.001

비에 대해서 추정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1단계 사교육비 추정결과를 보면 가구의 총 근로소득 및 자녀수가 사교육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의 총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표6>에서와 마찬가지로 도구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분석결과 중 사교육비의 영향을 살펴보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모형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기혼여성이 취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소득집단 중 가구소득이 <중>인 집단과 가구소득이 <상>인 집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의 요인의 영향으로는 가구의 총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기혼 여성이 취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났으며 이는 가구소득이 <중>인 집단과 가구소득이 <상>인 집단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얻어졌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기혼 여성이 취업 상태에 있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가구소득이 <하>인 집단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관해서는 고졸 이하 학력보다는 대졸 이상일 때 취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교육비의 지출이 많기 때문에 취업을 선택하는 것인지, 주 수입원 이외에 자녀의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이 높아지는 것인지, 이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시결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가계의 교육비와 기혼 여성의 취업선택 행동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을 고려해 소득 계층별 분석도 시도하였다.

가계의 사교육비에 여성의 취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가구소득이 <중>인 집단에서만 여성이 취업상태에 있을 때 미취업상태에 있을 때보다 사교육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가계의 사교육비 비율이 높아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기혼 여성이 추가적으로 취업을 선택했을 수 있으나 취업했다고 해서 사교육비 비율이 즉시 증가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사교육비가 기혼 여성의 취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살펴 본 결과, 이 역시 가구소득이 <중>인 집단에서 사교육비 비율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의 취업확률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옥·이선행(2009)의 연구에서 중졸 이하의 기혼 여성의 경우 사교육비가 높아질수록 경력단절의 가능성 높은 것에 대해 사교육비의 부담을 상쇄할 만큼의 충분한 근로소득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사교육비와 기혼 여성의 취업선택에 관한 각각의 분석만 가지고는 이 둘의 관계가 명확히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가계의 교육비와 기혼여성의 취업선택 행동 간의 동시결정성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t-1기의 사교육비 비율이 높을수록 t기에 기혼여성이 취업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집단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하>인 집단과, 가구소득이 <상>인 집단이 사교육비 비율이 높을수록 취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이 저소득층 일 경우, 교육비의 사적 부담의 증가는 가계를 압박하게 되고 이에 가계는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선택을 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가계의 소득계층이 고소득층 일 경우, 교육비의 사적 부담이 증가한다고 해도 부인의 취업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반된 결과가 얻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소득 계층별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소득수준과 부모의 학력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을 통한 분석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의 지출이 증가한다고 밝혀진 선행연구들(김대일, 2008; 김영옥·이선행, 2009; 석재은·김봉근·노혜진, 2012; 송헌재, 2012)이 시사 하는 것처럼 가계의 사교육비 및 기혼 여성의 취업선택을 논의할 때 소득계층과 부모의 학력을 동시에 고려하면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와 기혼 여성 취업과의 관계의 검증에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가계의 사교육비와 기혼 여성의 취업선택의 관계를 밝혀내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t-1기의 사교육비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년 변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진학한다든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진학한다든지, 고3이 되었다든지)에 따른 사교육비의 변화가 기혼 여성의 취업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남겨진 과제이다. 가계구조의 단기간의 변화는 기혼 여성의 취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으며, 또한 자녀의 취학단계 및 진급 등의 시기에 맞물려 일어나는 가계구조의 변화에 기혼 여성의 취업선택이 반응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가구의 소득집단을 분류할 때, 소득분위가 아닌 가구의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어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을 때 사교육비 비율 및 사교육비 지출이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한 분류기준으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대일(2008).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과 자녀 교육」, 『노동경제논집』, 31(2), 73-102.
- 김영옥·이선행(2009). 「자녀교육과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제1회 여성가족패널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1-19.
- 민인식·최필선(2009). 『STATA 기초통계와 회귀분석』, (주)지필미디어.
- 석재은·김봉근·노혜진(2012). 「한국의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28(3), 87-120.
- 송헌재(2012).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가구의 출산결정요인 분석」, 『응용경제』, 14(3), 51-78.
- 오은진·민현주·김지현(2008).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직업선택 결정 요인」, 『제1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447-465.
- 오은진·이한나(2013). 「기혼 여성의 직업 이동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2(1), 133-162.
- 유경원(2010). 「교육비 부담이 가계저축 및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21(4),

135-160.

都村聞人(2008). 「教育費負担に影響を及ぼす諸要因—JGSS-2002データによる分析」, 『JGSS Research series N. 2』, 135-148.

文部科学省(2013). 『教育指標の国際比較』, [http://www.mext.go.jp/b\\_menu/toukei/data/kokusai/\\_icsFiles/afieldfile/2013/04/10/1332512\\_04.pdf](http://www.mext.go.jp/b_menu/toukei/data/kokusai/_icsFiles/afieldfile/2013/04/10/1332512_04.pdf).

張世頌(2011). 「既婚女性の労働供給と夫の所得」, 『季刊・社会保障研究』, 47(3), 401-412.

武内眞美子(2004). 「女性就業のパネル分析」, 『日本労働研究雑誌』, 527, 76-88.